



소개

2026 제네바 워치스 앤 원더스

최초로 공개하는 올해의 테마,
밸리 오브 인벤션(THE VALLEY OF INVENTIONS)

핵심 내용:

- **정밀함의 발상지:** 발레드주의 혹독한 겨울이 키워낸 주민들의 독립성과 창의성, 그리고 현대 하이 워치메이킹의 토대가 된 장인 정신
- **탁월한 타임피스:** 정밀함과 정확성의 정수를 보여주는 크로노메트리부터 자이로투르비용 아스트라토스페르, 신비로운 La Vallée des Merveilles™(발레 데 메르베이유)로 선보이는 15 점의 익스클루시브 에디션
- **몰입감 넘치는 경험:** 워치메이킹 시연, 오감을 깨우는 다채로운 영상, 르 샬레에서의 특별한 미식까지 어우러진 감각적인 여정

2026 년, 예거 르쿨트르는 오늘날까지 메종을 이끄는 창의적 정신의 발상지, 발레드주에 경의를 표합니다. 진정한 ‘밸리 오브 인벤션(The Valley of Inventions)’인 이곳은 워치메이킹의 본질인 정밀함과 정확성을 향한 탐구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올해 테마는 2026 제네바 워치스 앤 원더스에서 최초로 공개됩니다. 발레드주의 정취와 혁신의 역사를 담은 몰입형 부스는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서 메종의 명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미래의 워치메이킹을 선도할 대담한 영감을 선사합니다.

스토리: 혹독한 겨울이 만든 정밀함과 정확성의 발상지

워치메이킹 탄생의 기록

밸리 오브 인벤션은 600 년 전 유럽 각지의 망명자들이 안식처를 찾아 모여들었던 이 지역에 경의를 표합니다. 삶은 계절에 따라 변화해왔습니다. 여름의 발레드주가 알프스의 농경과 낙농으로 활기를 띠었다면, 혹독한 추위로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겨울에 농부들은 샬레에서 금속을 가공하는데



전념했습니다. 절실함 속에서 창의성을 꽃피운 이들은 인내심과 정확성을 바탕으로 점차 정교한 물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마침내 워치메이킹이라는 유산으로 이어졌습니다.

피에르 르쿨트르(Pierre LeCoultre)가 발레드주에 정착한 지 10 대째인 19 세기 초, 독학으로 시계 제작을 익힌 앙투안 르쿨트르(Antoine LeCoultre)는 현대 워치메이킹의 초석이 될 기계들을 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이전에 없던 정밀한 수준의 부품 측정과 가공이 가능해졌습니다. 1833 년 설립된 최초의 르쿨트르 워치메이킹 아틀리에에서부터 이러한 창의적인 정신은 메종을 정의하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연이은 기술혁신으로 탄생한 칼리버들은 유수의 워치메이킹 브랜드로부터 찬사를 받았으며, 이로써 예거 르쿨트르는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430 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한 이 발명의 유산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며, 메종이 추구하는 정밀함과 정확성의 길을 제시합니다.

발명 정신을 담아낸 부스

메종의 발명 정신이 깃든 이야기를 풍부한 감성으로 구현한 이번 워치스 앤 원더스 부스는 겨울 숲의 적막한 고요함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이는 발레드주의 초기 정착민들이 대장장이를 거쳐 워치메이커로서 기술을 연마하던 살레의 따뜻한 안식처와 선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대지를 뒤덮은 차가운 얼음은 대장간의 뜨거운 불꽃을 만나 창조의 에너지로 피어납니다.

부스의 레이아웃은 중앙으로 시선을 이끄는데, 그곳에는 약 4 미터 높이의 웅장한 소나무 얼음 조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얼음 테마를 잇는 베벨 가공된 프로스티드 글래스 패널은 발레드주에 경의를 표하는 천연 소재 중에서도 특히, 골드 톤의 소나무 목재가 선사하는 따스함과 대조를 이룹니다. 3 개 층으로 구성된 부스는 발명과 정밀함 및 정확성의 서사 속으로 초대하며, 신제품과 전체 컬렉션을 아우르는 몰입도 높은 경험을 선사합니다.



새로운 모델: 발명의 정신을 잇다

정밀함과 정확성의 추구

기존 모델의 미적인 재해석부터 완전히 새로운 칼리버에 이르기까지, 2026 제네바 워치스 앤 원더스에서 선보인 시계들은 정밀함과 정확성이 지닌 다채로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정밀한 시간 측정: 마스터 컨트롤 크로노미터는 일체형 메탈 브레이슬릿과 함께 크로노미터 성능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예거 르쿨트르가 새롭게 도입한 HPG(High Precision Guarantee) 인장이 증명하듯, 최상의 품질과 피니싱으로 이어집니다. 마스터 컨트롤 크로노미터 컬렉션은 세 가지 모델을 처음으로 선보입니다. 데이트 디스플레이, 퍼페추얼 캘린더, 그리고 파워 리저브와 데이트를 결합한 모델로 구성되며, 특히 마지막 모델에는 새로운 인하우스 무브먼트인 칼리버 738 이 탑재되었습니다.

극한의 정확성: 자이로투르비용 아 스트라토스페르는 3 개 축이 가능한 위치의 98%를 아우르며 정확성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189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특허 구조의 3 축 투르비용은 0.78g 에 불과한 놀라운 무게감을 자랑합니다. 칼리버 178 무브먼트는 기요세, 에나멜, 래커 등 메종의 메티에 라르™ 마감을 통해 정교한 부품 하나하나가 다이얼과 같은 예술 작품으로 거듭났습니다.

최첨단 컴플리케이션: 세계에서 가장 얇은 오토매틱 미닛 리피터 투르비용을 탑재한 마스터 히브리드 아티스티카 울트라 썬 미닛 리피터 투르비용은 60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새로운 케이스와 칼리버 362 가 장착되었습니다. 오픈워크 구조와 사파이어 브릿지를 통해 칼리버를 구성하는 593 개 부품의 매혹적인 움직임이 드러나며, 부품 조립에만 7 주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수상 경력에 빛나는 무브먼트의 재탄생: 마스터 그랑 트래디션 투르비용 점핑 데이트는 칼리버 978 에 새로운 미학을 부여하는 혁신적인 무브먼트 구조를 선보입니다. 2009 년, 이 칼리버는 현대 크로노메트리 대회에서 첫 1 위를 차지했습니다. 오픈워크 다이얼은 18K 화이트 골드(750/1000) 소재의 원형 브릿지와 상징적인 '점핑' 데이트 메커니즘을 갖춘 투르비용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60 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정교한 42mm 케이스는 그랑 트래디션 컬렉션의 세련된 디자인 코드를 그대로 담아냈습니다.



한계가 없는 메티에 라르™ 노하우

2016 년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 설립 이후, 에나멜 장인과 인그레이빙 장인, 켈세팅 장인, 기요세 장인들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인간의 창의성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진정한 예술 작품을 완성합니다.

무한한 영감의 원천, 자연: 새로운 캡슐 컬렉션 시리즈인 La Vallée des Merveilles™(발레 데 메르베이유)는 지구상에 남은 마지막 청정 지역부터 아름다운 정원의 예술성에 이르기까지,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인 풍경을 예찬합니다. 첫 번째 캡슐은 하와이의 열대 풍경과 일본의 섬세한 미학을 담은 세 가지 리베르소 원 에디션을 통해 메종의 인하우스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가 지닌 독보적인 기술력을 증명합니다. 금박 파요나쥬와 샹르베 에나멜링, 켈세팅 기술이 집약된 이번 시리즈는 각 2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입니다.

미니어처로 담아낸 일본의 웅장한 미학: 메티에 라르™ 기술력에 경의를 표하는 네 가지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호쿠사이'는 10 피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선보입니다. 각 모델은 호쿠사이의 상징적인 '폭포' 연작에서 영감을 받은 그랑 퓨 에나멜 미니어처가 특징으로, 정교한 수작업의 기요세 다이얼과 케이스 백의 미니어처 페인팅이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약 100 시간에 달하는 장인의 정성이 깃든 각 피스는 19 세기 일본의 거장 호쿠사이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정밀함과 정확성의 새로운 경지

혁신을 향한 끊임없는 열정으로 탄생한 새로운 마스터 컨트롤 크로노미터는 메종의 새로운 인장인 'HPG(High Precision Guarantee)'를 선보입니다. 이는 정교한 미적 마감을 넘어, 타임피스의 탁월한 정확성까지 엄격히 보증합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이 인증은 특허 출원 중인 엄격한 프로토콜을 거칩니다. 시계를 완전히 조립한 상태에서 실제 착용 환경을 재현해 정밀하게 테스트하며, 고도, 충격, 위치, 온도의 네 가지 핵심 요소를 기준으로 성능을 철저히 평가합니다. 특허 출원 중인 이 방식은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이상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도 시계의 정교한 메커니즘이 최상의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HPG 인장 외에도, 테스트의 정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모든 마스터 컨트롤 크로노미터는 권위 있는 COSC 인증까지 획득했습니다. 이는 '크로노미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공신력 있는 인증입니다.



경험: 혁신을 향한 여정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시연

부스 내부에 위치한 알프스 전통 가옥 스타일의 샬레에서는 매뉴팩처의 마스터 워치메이커들이 네 가지 하이 워치메이킹 기술을 직접 시연합니다. 정교한 메커니즘의 두 기술, 나머지는 케이스와 다이얼을 장식하는 예술적인 수공예 기술을 다루며, 모든 공정은 세심하고 정밀하게 진행됩니다.

기요세: 로즈 엔진 래쉬라 불리는 전통적인 수동 기계로 정교한 선을 새겨 패턴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매뉴팩처에서도 단 두 명의 장인만이 이 기술을 완벽히 구사할 수 있습니다.

베벨링: 무브먼트 부품의 모서리를 수작업으로 깎고 연마하는 공정입니다. 거울처럼 매끄러운 경사면을 만들어 빛을 정교하게 반사합니다.

워치메이킹: 시계의 제어 시스템을 심도 있게 다루며, 특히 자이로투르비용 아 스트라토스페르의 정교한 메커니즘을 집중 조명합니다. R&D 연구소의 설계 및 혁신 팀, 그리고 워치메이커들이 이 다축 시스템의 정교한 구조를 분석합니다. 이와 함께 최첨단 기술로 개발된 다양한 형태의 밸런스 스프링 개발 과정을 선보입니다.

에나멜링: 매우 까다로운 에나멜링 기술 중 하나인 미니어처 페인팅 시연을 선보입니다. 네 가지 새로운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호쿠사이 에디션을 통해 섬세한 에나멜링 기법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나멜을 한 층씩 코팅하는 과정을 통해 다이얼에 회화와 같은 깊이감을 더하는 기술을 보여줍니다.

르 샬레에서 선보이는 새로운 미식 여정

예거 르쿨트르는 Made of Makers™ 프로그램의 새로운 협업으로 재능 있는 스위스 셰프인 질 바론(Gilles Varone)을 초빙했습니다. 그는 부스 내 르 샬레(Le Chalet)에서 초청 고객을 위한 새로운 미식 경험을 선보입니다. 미슐랭 2 스타 셰프 질 바론은 선호도가 분명한 식재료인 치즈를 주제로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그는 네 가지 바이트를 통해 감각적인 즐거움을 선사하며, 스위스의 가장 고전적인 식재료인 치즈를 예술적 경지로 끌어올렸습니다. 시식 경험을 극대화하는 특별한 음료와 함께 제공되는 네 가지 바이트는 전통적인 치즈보드를 새롭게 재해석합니다. 질 바론은 섬세한 풍미의 조화, 독특한 질감, 정제된 비주얼을 통해 식재료를 향한 진심 어린 경의를 보여줍니다.



몰입형 시네마 체험

오감을 깨우는 다채로운 영상이 30 분마다 재생되어 매뉴팩처를 있게 한 곳과 사람들, 그리고 발명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4D 시네마 기술에서 영감을 받은 영상은 부스 안팎의 모든 방문객이 전 방향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영상의 흐름에 맞춘 물리적 효과와 공간 연출을 통해 관객은 단순히 관람하는 것을 넘어 영상의 일부가 된 듯한 몰입감을 경험합니다.

예거 르쿨트르 부스를 심층적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방문객을 위해 가이드 투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워치스 앤 원더스는 2026 년 4 월 14 일부터 20 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며 4 월 18 일 토요일부터 4 월 20 일 월요일까지는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데이 티켓은 <https://www.watchesandwonders.com/en/geneva-2026> 에서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밸리 오브 인벤션 소개

예거 르쿨트르의 탄생지이자 오늘날까지 터전이 된 발레드주를 기념하는 밸리 오브 인벤션은 600 년 전 유럽 각지의 망명자들이 안식처를 찾아 모여들었던 이 지역에 경의를 표합니다. 초기 정착민들은 척박한 환경과 혹독한 추위 속에 살아남기 위해 강한 의지와 인내심, 창의성을 길러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10 세대가 지난 19 세기 초, 독학으로 시계 제작을 익힌 앙투안 르쿨트르는 현대 워치메이킹의 초석이 될 기계들을 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이전에 없던 정밀한 수준으로 시계 부품 측정과 가공이 가능해졌습니다. 1833 년 설립된 최초의 르쿨트르 워치메이킹 아틀리에에서부터 이러한 창의적인 정신과 정밀함 및 정확성의 추구는 메종을 정의하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력이 집약된 칼리버는 자체 시계에 탑재하려는 우수 브랜드들의 선택을 받았으며, 메종이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라는 독보적인 명성을 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430 건 이상의 특허로 증명된 끊임없는 혁신은 메종이 추구하는 정밀함과 정확성의 동력이자,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표가 되어 줍니다.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르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합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들이 탄생합니다.

jaeger-lecoultre.com